

## 공교로움의 수사학, 니힐리즘의 생리학\* — 김광주 첫 단편창작집 『결혼도박』을 중심으로 —

진 선 영\*\*

### 요 약

본고는 해방공간에 쓰이고 전후시기에 발표한 김광주 첫 창작단편집 『결혼도박』 분석을 통해 김광주 문학의 연속성과 변곡점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결혼과 도박, 공교롭다의 어휘가 모노그램처럼 결합하고 그것이 모놀로그의 자기 독백으로 발화되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김광주 초기소설과 변화된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상해 시절 열정적, 낭만적,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흡수한 아나키즘은 이념적 체계나 사유의 틀이 아니라 그 시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을 통한 개인적 심정적인 것이었기에 김광주만의 자유분방함을 담고 있었으며 이것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낼 때 비판성, 대항성, 대안성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식민도, 국민도, 투사도 될 수 없었던 김광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술과 방랑(연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자조적 글쓰기뿐이었다.

모든 형태의 폭압, 위선, 가식 등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아나키즘은 궁극적으로 질서에 대한 반역을 통한 파괴 후의 신사회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는다. 하지만 새로운 신사회로 기대됐던 해방공간에 상해파 아나키스트가 설 자리는 없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국가, 종교, 가

\* 이 논문은 제54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 학술대회('소설이란 무엇인가', 2018. 10.27.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으로 당시의 토론 내용을 보충하여 수정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족이 김광주를 짝어 누르고 있었으며, 목적의식이 파괴되었을 때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에 대해 희망 없음의 비판성을 드러내는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적 성향으로 타협해간 것이다.

소설의 결말은 이 모든 공교로운 상황은 “뜻하지 않은 일도”, “놀랄 일도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닥쳐올 자기의 운명을 접쳐보며 아무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적 언술로 마무리된다. 소설 속 인물은 모놀로그의 형식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발화할 수 있는 단독자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유발되지 않고 외부 상황을 건조하게 묘사하거나 폐쇄적 자기 독백만이 전체를 지배한다. 이러한 공교로운 상황에 대한 인물의 모놀로그는 김광주 소설에서 인물의 심경과 주관의 독백이 압도하는 허무주의적 세계를 구현한다. 낭만적이며 자유로운, 비판적 대안성이 사라진 아나키즘이 손쉽게 선전적인 니힐리즘의 생리를 선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학으로 반영될 때 모놀로그 형태의 자기 독백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다.

주제어: 김광주, 아나키즘, 니힐리즘, 결혼, 도박, 공교롭다, 모노그램, 모놀로그

## 목차

1. 들어가며
2. 결혼과 도박의 모노그램(monogram), 염세주의적 생리
3. 공교로운 상황과 자기 폐쇄적 모놀로그(monologue)
4. 나오며

## 1. 들어가며

김광주의 문학은 주제와 작품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하고 개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현대소설사상 하나의 특이한 예로 간

주된다. 1) 김광주를 평가한 몇 되지 않는 문학사 서술에서 앞선 정한숙의 평가는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중국 생활 및 작가 자신의 대륙적 기질이 반영된 폭넓고 선이 굵은 작품 계열에 기댄 논평으로, 해방기 ‘중국통’으로 분류되던 작가의 평판과 맞물린다. 이러한 이유로 1930년대 김광주가 상해에 체류하며 발표한 다양한 서사(소설, 수필, 번역, 희곡, 영화평 등)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sup>2)</sup>, 한중(비교, 번역)문학<sup>3)</sup>, 사학<sup>4)</sup>, 영화학적<sup>5)</sup> 측면에서 다

1)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2, 188면.

2) 김은하, 『김광주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6.

김철, 『김광주의 초기 소설 연구-1950년대 전 중국 배경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조선민족문화대계13』, 보고서, 2007, 229-241면.

김호웅, 『1920-1930년대 조선문학과 상해-조선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259-288면.

박자영, 『1930년대 조선인 작가가 발견한 어떤 월경(越境)의 감각: 김광주의 상하이 시절 텍스트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8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3, 293-321면.

서은주,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모던 상하이'의 표상-김광주의 문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433-458면.

유예현, 『김광주의 『아방궁』과 『상해시절회상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회, 2018, 225-262면.

정주아, 『유맹(流氓)의 서사와 재중(在中)조선인 집단의 자아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2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 417-444면.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5, 한중인문학회, 2008, 95-125면.

표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 소설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

3) 김철, 『중국 현대 문예 매체에 발표된 김광주의 문예 비평에 대한 소고-신 발굴 중국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15, 239-264면.

\_\_\_\_\_, 『김광주의 서양문학 인식과 그 전파에 대한 소고』, 『한중인문학연구』 54, 한중인문학회, 2017, 77-100면.

박남용, 박은혜, 『김광주의 중국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중국연구』 4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135-153면.

박남용, 윤혜연, 『일제시기 중국 현대소설의 국내 번역과 수용』, 『중국어문논역

각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김광주 문학에 대한 이처럼 눈부신 연구 결과는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작품세계의 돌출성을 한국문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전환시킨 다학제적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한숙의 문학사적 평가에서 ‘대륙적 기질’로 평가되는 한 축과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것이 ‘한국전쟁 후 세태를 나름의 현실감각으로 작품화’한 계열이다. 이는 김광주가 한국전쟁 이후 발표한 소설이 거의가 대중장편소설이고, 이것이 세태소설류로 항목화 되면서

충간』 24, 중국어문논역학회, 2009, 305-325면.

박남용, 임혜순, 『일제시대 중국 현대회곡의 국내 번역과 그 특징 연구』, 『중국학연구』 50, 중국학연구회, 2009, 429-459면.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제55호, 민족문학사학회, 2014, 121-152면.

\_\_\_\_\_, 『중국문학 및 일본문학 번역의 역사성과 상상력의 집편』, 『동방학지』 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259-285면.

왕철, 『백화 양건식의 번역문학 : 중국신문학운동 번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정은경, 『상하이의 기억 : 식민지 조선인과 제국 일본인의 감각-김광주와 요코미쓰 리이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77-110면.

홍석표,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무선 소설의 번역』, 『중국문학』 8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75-116면.

- 4) 김명섭, 『1930년대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아나키즘 인식』, 『사학지』 52, 단국사학회, 2016, 33-59면.

손과지, 『일제시대 상해 한인사회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8.

유세중, 『식민지 상하이와 탈식민지 상하이의 비주류 여성』, 『중국현대문학』 3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5, 143-175면.

이영미, 『중국 상해의 항일운동과 한국의 문학지식인』, 『평화학연구』 13, 한국평화통일학회, 2012, 217-238면.

이혜진, 『‘올드 상하이’의 도시 사회학과 식민지 조선인의 원풍경』, 『우리문학연구』 51집, 우리문학회, 2016, 135-164면.

최낙민, 『김광주 문학작품을 통해 본 상해와 한인사회』, 『동북아문화연구』 2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185-202면.

- 5) 안태근, 『일제강점기의 상해와 한국영화인의 연구』, 외국어대 석사논문, 2001.  
진저, 황칭타오, 『상하이 『신보(晨報)』 문예면에 게재된 김광주의 영화소개 및 비평에 대한 소고』, 『아시아문화연구』 45,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453-487면.

연은 평가이다. 이 작품들은 에피소드나 제재적인 면(상해 이미지, 혁명가, 매춘부 여성 등)에서 초기소설과 연속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작품이 지향하는 바, 주제의식의 측면에서는 초기소설과 이질적인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이 시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복잡성과 중층성은 해방-한국전쟁-전후 시기를 살아낸 김광주의 작가의식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한국문단에서 펼쳐질 소설적 노정을 선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을 요한다.

김광주의 생애를 추적한 한동민의 글을 보면 김광주는 1929년 상해로 이주하여 1945년 12월 해방된 조국으로 귀환한다.<sup>6)</sup> 기간으로 보면 15년 이상의 긴 해외지만 1931년 중국의 프로 문예 운동을 한국 문단에 소개하는 평론<sup>7)</sup>으로 글쓰기를 시작하여 1938년 상해를 떠나며 느낀 심경을 고국으로 실어 보낸 에세이<sup>8)</sup>가 마지막 글이다. 물론 그 기간에 적지 않은, 다양한 서사를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6) 한동민은 김광주의 삶을 크게 네 단계로 대별하였다. 첫째, 1910년 수원에서 태어나 제일고보를 자퇴하기(1929)까지, 둘째 형 김동주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후 상해에서 체류하던 시절(1929-1938), 셋째 해방 이후 언론인이자 문학가인 시대(1945-1954), 넷째 전업작가가(1954-1970)가 그것이다. 김광주의 문학을 재조명한 조성면은 실질적인 작품 활동이 이루어진 상해 시절을 문학적 1기(1929-1945)로 놓고 이 시기에 단편소설, 시, 평론, 연극 등을 발표하였고, 이것의 대부분이 사회성이 강한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제2기는 해방공간(1945-1950)으로 열정과 좌절의 교차기로 생활고와 각종 사회활동으로 소설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제3기는 한국전쟁과 환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시기(1951-1959)로 신문연재소설이 지닌 대중성, 고발과 풍자, 스노비즘 등이 혼재되어 복잡한 중층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제4기(1961-1973)는 무협소설과 대중적 글쓰기의 시대로 『정협지』와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은 『아방궁』이다. 조성면의 연구는 성글긴 하지만 김광주 문학을 통시적으로 살핌으로써 작품의 내적 연속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개별 문학과 작품에 대한 논의로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동민, 『수원출신 소설가 김광주의 생애와 활동』, 『수원 출신의 소설가 김광주의 삶과 문학』, 경기르네상스포럼 수원박물관 2016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

7) 김광주, 「중국 프로 문예 운동의 과거와 현재」, 『조선일보』, 1931.8.4-8.

8) 김광주, 「상해를 떠나며-파랑의 항구에서」, 『동아일보』, 1938.2.18.-23.

1945년 귀환 직후부터 1973년 지병으로 작고하기 전까지 이룩한 문학적 업적에 양적으로 비견할 바는 아니다.

해방 이후 김광주 문학에 관한 연구는 대표 장편이나 무협소설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김광주의 대표 장편소설은 『석방인』<sup>9)</sup>으로, ‘전쟁’, ‘세대’, ‘반공’의 키워드로 전후 문학의 범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sup>10)</sup> 무협소설의 경우 대중문학의 범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sup>11)</sup> 김광주가 미완이긴 하지만 첫 장편소설을 발표한 것이 1951년이니<sup>12)</sup> 여전히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김광주 문학 활동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다리는 셈이다.

- 9) 김광주, 『석방인』, 『경향신문』, 1953.7.10-12.31. 김광주는 『석방인』 이전에 두 편의 장편소설(『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동방이 밝아온다』)을 집필하였으나 개인적인 혹은 잡지사의 사정으로 모두 미완으로 연재를 마치지 못하였다.
- 10) 임세화, 『포로』라는 이념:한국전쟁 ‘포로서사’와 ‘자기구성’의 가능성,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63-116면.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 정치』,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9-61면.  
전지니, 『김광주의 『석방인』을 통해 본 전후 복구의 문제』, 『한국문예창작』 16,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69-99면.  
최미진, 『반공포로 석방과 국민형성의 딜레마』, 『한국민족문화』 41, 분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3-65면.
- 11) 고훈, 『김광주 <정협지>의 대중성 확보 전략 연구-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 99-120면.  
김명석, 『한중대중소설 비교연구:무협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론총』 21, 중국어문연구회, 2001, 431-452면.  
이인화, 『김광주 번안무협소설의 문학적 의미』, 『정협지』, 생각의 나무, 2002.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2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203-229면.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김광주의 <정협지> 화소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65-87면.
- 12) 김광주,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경향신문』, 1951.12.1.-1952.4.2. 이 작품은 1951년 12월 1일 연재를 시작하여 1952년 2월 18일까지 총 71회 연재되다가 작가가 『자유세계』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중단되었다. 이후 1952년 3월 3일부터 72회가 연재되어 1952년 4월 2일까지 총 101회가 연재되었으나 ‘작가의 신병으로 인하여’ 연재가 중단, 미완으로 마무리 되었다.

본고는 최근 이루어진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 연구』<sup>13)</sup>의 후속적 성격을 지닌다. 김광주가 상해에서 발표한 초기소설이 단순한 유이민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꿈임 없이 조국의 문단속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실어 나르던 조계 작가의 비판을 통해 식민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포스트식민의 대안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즉 이산자이자 문화번역자였던 김광주의 정체성은 관찰적 시선을 통해 비판성과 대안성을 갖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유증한 테제를 내세운 해방공간에 귀환자로서 서게 된 김광주의 포즈는 어떠했을까?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양자강 연안』, 『바다는 말이 없다』, 『남편은 무능했다』)은 상해시절에 발표한 소설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사(志士)와 그 후예들의 이야기를 통해 해방공간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이 시기 혁명가의 삶을 소설적 재료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김광주만의 특이성이자 문제의식이며 혁명‘가’(家)의 좌절과 모멸감을 통해 역사에 대한 날선 정리적(正理的)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광주의 해방 후 첫 단편집작집의 제목 혹은 표제작은 초기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귀환 삼부작 소설 중에 하나이면 합당할 것이다. 여러모로 해방 공간에서 작가의 입지점이나 특이성을 표출하기 적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단편집작집 표제작이 『결혼도 박』이라는 사실은 일견 놀랍기도, 어리둥절하기도 하다.<sup>15)</sup> 이 얼떨

13) 진선영,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5, 한중인문학회, 2018, 45-67면.

14)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08면.

15) 상해시절 관련 이야기가 전면화 되어 있는 『양자강 연안』과 『남편은 무능했다』를 제외하고 소재적 차원에서 상해시절의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은 두 편이다. 『

떨함을 해소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자 해방 이후 김광주 작품 세계 변모를 확인하는 첫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제 문제적 개인 김광주의 초기소설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속적인 측면에서 상해에서 귀환 후 모국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에 대한 평가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한 작가의 개별 작가론 작품론에만 지엽된 문제가 아니다. 작가정신의 요체인 산문정신이 당대와 맞부딪혀 이전과는 다른 소설적 변용을 일구어 낼 때 그 상호작용의 주체(사회)와 객체(작가/소설)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리얼리티에 침윤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귀환소설을 통해 해방기의 이중성과 혁명가의 좌절을 다룬 김광주는 귀환소설의 세계와 연속선상에서 첫 번째 단편 창작집을 묶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방 공간에서 쓰이고 전후시기에 발표한 김광주 첫 창작단편집 분석을 통해 김광주 문학의 연속성과 변곡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해방기, 한국전쟁 이후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피난과 환도의 서사에서 세태를 배경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파악하는 주인공과 그들의 반응태를 통해 김광주의 현실인식과 앞으로의 문학세계를 점쳐볼 것이다. 이를 통해 김광주 문학을 전체적, 통시적으로 조망하고자할 때, 이 시기 김광주 문학이 걸어간 길에 대한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

---

유부지부,에서 남편 채가 바람이 났다는 '루바'라는 여성은 다방 플라타너스에 있는 연극배우 노릇을 했다는 마담이다. 상해 시절 동지 '이 형'의 애인으로(당 시에는 리나라는 이름의 댄서) 밀정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오해였다는 사실을 나에게 고백한다. 『눈오는 밤에』의 '남 군'은 상해에서 일본군 공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 전야에 붙들려 장기 감옥에서 십칠 년을 살았고 해방 후 귀국선을 타고 한국에 왔으나 방공호 신세를 지다가 그곳에서 춘옥이를 만나 선술집 주인의 서방 노릇을 하고 있다. 두 작품의 화자 '나'는 '이 형'과 '남 군'의 상해 시절 동지였다.



## 2. 결혼과 도박의 모노그램(monogram), 염세주의적 생리

김광주의 해방 후 첫 창작활동은 1946년부터 시작된다. 조우의 『너우』를 번역하여 선문사에서 출판하고 이용규와 공역하여 『노신 단편소설집』 2권을 서울출판사에서 간행, 이범석의 『한국의 분노』를 번역하여 광창각에 발행하였다.<sup>16)</sup> 이와 함께 다양한 수필 및 평론을 발표하였고 1947년 콩트 형식의 소설 『춘우(春雨)』<sup>17)</sup>를 발표하여 해방 이후 소설쓰기를 시작한다.

1952년에 출판된 김광주의 첫 단편소설 창작집인 『결혼도박』에는 모두 14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는데 해방 공간, 전후, 피난지에서 살아가는 다채로운 인간 군상과 그들이 직조해 내는 삶의 모순들로 가득 차 있다.<sup>18)</sup> 그리고 그 모순의 상징어가 ‘결혼’과 ‘도박’이다. 단편창작집 전체를 통틀어 결혼은 64번, 도박은 44번 사용되었는데 다발한 횟수를 통해 볼 때에도 작가 의식의 중요한 제재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소설에서 개별적으로 소재화 된 것이 아니라 마치 모노그램처럼 결혼과 도박의 어휘가 겹쳐져 독특한 의미망(작가정신)을 생성하고 있다.

16) 이범석 작, 『한국의 분노』, 김광주 역, 광창각, 1946.

조우 작, 『너우』, 김광주 역, 선문사출판부, 1946.

김광주, 이용규 공역, 『노신단편소설집』, 서울출판사, 1946.

17) 김광주, 『춘우(春雨)』, 『민중일보』, 1947.4.13.

18) 김광주, 『결혼도박』, 금정문화사, 1952. 개별 작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발표 순서에 따라 「청계천변」, 『문예』, 1949.8. 「춘몽(春夢)」, 『주간서울』, 1949.10. 「유부지부(有夫之婦)」, 『신경향』, 1949.12. 「사십유혹」, 『민성』, 1950.1. 「남편은 무능했다」, 『신천지』, 1950.5. 「결혼도박」, 「유부지부(有婦之夫)」, 「봄 밤에 비는 내리고」, 「눈 오는 밤에」, 「양자강 연안」, 「1952년의 대사」, 「수면제」, 「나의 가슴은 항상 푸르다」, 「심장에 화살을 쏜다」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모노그램(monogram)은 어원적으로 라틴어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Mono’는 하나(一)를 뜻하고 ‘gram’은 쓰다(write), 그리다(draw), 기록하다(record)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모노그램의 의미는 표장으로서 서적에 인쇄하거나 의복에 수를 놓는 머리글자를 띤 결합문자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디자인적인 의미는 조합문자로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이름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것을 말한다.<sup>19)</sup>

두 개의 글자가 겹쳐져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것은 일정한 메시지를 담고 강렬하게 기억되며 훨씬 더 깊은 주의를 요한다. 보통의 모노그램은 머리글자를 결합해 시각적 충격을 도모하는 기호론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결혼과 도박이라는 어휘가 겹쳐진다는 모노그램의 형식을 차용하여 의미론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남녀가 정당한 격식이나 의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을 가진 결혼,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인 도박, 두 단어의 합성이 이다지도 생경한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자 항구성 대 일회성, 필연과 우연 등 의미상 반의어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의어를 결합하여 얻어지는 당황스러움을 두 어휘를 제목으로 달고 있는 단편소설이자 첫 창작집의 표제작인 『결혼도박』을 통해 확인해보고 소설의 의도를 쫓아가 보자.

인생의 행복과 명량을 제조하는 시민당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건너편 다방에 마주앉은 나와 시인 B씨, 시인 B씨는 미남, 귀공자의 호칭을 듣는 인물이자 방랑자라는 별명을 지닌 기인인데, 이 소설은 그가 나에게 자신의 결혼, 인생의 실패담을 들려주는 액자소설의 형

19) 장은석, 김영배, 『모노그램 심볼디자인의 바리에이션에 관한 고찰』, 『조형미디어학』,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05, 191-200면.

태를 취하고 있다.

약혼하고 삼년이나 연애한 여성이 결혼식 비용을 장만하지 못하는 시인과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파혼을 선언하자 시인 B씨는 그 울분에 두 번째 도박을 시도한다. 그 도박이라는 것은 더 나은 조건의 여성과 결혼하여 복수하는 것이다. 하숙집 주인의 소개로 과장 노릇에 집이 한 채 생기고, 미모를 갖춘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결혼을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절름발이 다리병신에 국장의 자리에 있다는 장인은 험잡꾼, 과장의 꿈도 일장춘몽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간 꼴로, 인생을 도박장의 판돈으로 걸었으나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도박꾼의 이야기, 여기서 얻은 해답은, 결혼은 인간을 구렁텅이로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며 인생은 자기가 맘먹는 일을 이루고 싶어서 도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삶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결혼은 인륜적 관계이다. 결혼은 이상을 포함하면서도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생활 자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관계에서 성립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계이다. 결혼이 사회적 형태를 취하는 것은 연애 지상주의나 결혼제도를 부정하는 동거주의나 내연관계에 반해 감정의 변덕이나 우연성을 극복하고 법적인 규정에 따른 관계를 취하는 것으로서 항구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며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유희적이며 위험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 주체의 상황이라면 도박은 주체의 행위일 텐데 두 단어의 조합 자체에 이미 불행과 비극이 깃들여져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혼도박』에서는 결혼과 도박의 어휘가 모노그램처럼 겹쳐져 극단적 반의어가 유발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언술이 지배적이었다면 제목의 한자어는 바뀌지만 동일한 제목인 『유부지부』는 또 다른 의미의 모노그램 소설이다. 이 둘은 바람난 남편을 찾아 헤

매는 아내의 이야기(有夫之婦), 사라진 아내를 찾는 남편의 이야기(有婦之夫)라는 점에서 서로 맞물리며 ‘작소설’이라는 독특한 소설 형태를 갖는다.

『유부지부(有夫之婦)』의 남궁 여사는 R전문을 나온 재원으로 아름다운 미모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설레어 놓던 인물로 장안에 이름을 날리던 중견 연출가인 채의 열렬한 구애로 결혼에 이른다. 하지만 결혼한 지 오년이나 되어 자식은 둘, 남편은 여배우에 빠져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은지 오래고 남궁 여사는 바람난 남편을 찾아 거리를 전전하며 왈패처럼 변하였다.

『유부지부(有婦之夫)』에서 신문화 잡지사의 유일한 여성인 안 여사는 남자 이상으로 명랑하고 쾌활한 여성이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착실하게 잡지사의 일을 보아오던 안 여사가 옛새가 지나도 잡지사에 나타나지 않고 종적조차 알 수 없었다. 부군 된다는 이는 매일같이 수차례씩 전화를 걸고 마치 잡지사원들이 공모하여 안 여사를 빼돌렸다는 불쾌한 언사까지 늘어놓는다. 옛새 만에 사에 나타난 안 여사는 남편이 친정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으나 현재는 타박에 오입질까지 하여 아내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친구 집에 숨어 있었노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소설은 전개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과 명망 있고 잘생긴 남성이 결혼하여 여성은 왈패처럼 변하였고, 남성은 압객(狎客)이 되었다. 무대의 대사처럼 주어지는 남편 채의 발언을 통해 두 편의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교집합할 수 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 예술의 무덤이니, 아내는 남편의 무거운 짐이고 남편은 아내의 무거운 짐이며 남은 것은 삶의 권태밖에 없다.”(31면)

『봄밤에 비는 내리고』와 『춘몽』은 제목도 유사하지만 한 편의 소설로 묶어 놓아도 좋을 모노그램 소설이다. 소학교 교원인 연희는

아버지 없는 아들과 늙은 아버지, 버려진 조카들까지 거느리며 군세계 살아가는 여인이다. 소학교 일학년이 된 아들의 란도셀 가방<sup>20)</sup>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봄 밤, 이 밤은 이 년 전 공산주의에 환장한 남편의 구박과 수모에 못 이겨 삼팔선을 넘던 날과 오버랩 된다. 환멸과 우울, 비애를 삼키고 이 년이라는 세월을 여자의 몸으로 군세계 살아온 연희는 ‘삶에 대한 희망’, ‘생의 의욕’을 집약하는 란도셀 가방<sup>21)</sup>을 살 수 있는 이 밤이 지극히 명랑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행복한 마음도 잠시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이 월남하여 찾아왔더라는 소식을, 또 조강지처이니 그를 다시 받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연희는 절망하며 소설은 끝이 나고 『춘몽』이 시작된다.

집을 찾아와 편지를 남기고 간 남편에게 회신하는 글로 쓰인 이 소설은 『봄밤에 비는 내리고』에서 소략되었던 결혼하게 된 배경과 끄적했던 결혼 생활이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 날목소리로 생생히 전달된다. “당신은 나에게 평양 일류부호의 맏아들인 당신의 셋째 첩이라는 명예스러운 운명을 뒤집어 씌워 놓고 도박과 기생외입에 여념이 없었고”(88면) “해방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동과 함께 더 무섭고 더 극악스럽고 더 알 수 없는 한 개의 폭군으로서 나에게 군림했

20) 란도셀(ランドセル)은 일본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메는 책가방을 말한다. 란도셀의 기원은 150년 이상 전으로,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군대 제도가 전래되면서 장병들의 휴대품을 수납하기 위한 ‘란셀’이라고 하는 배낭형 가방도 함께 들어온 것이 그 시작이다. 그 후,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편리하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고 또한 튼튼하다는 이유로, 1950년대 이후부터는 ‘란도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초등학교생의 통학용 가방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초등생용 책가방으로 고가의 제품이다. 역사교육자협의회 엮음, 『학교사로 읽는 일본 근현대사』, 김한중 외 옮김, 책과 함께, 2012, 40-41면.

21) 란도셀 가방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눈오는 밤에』에서도 등장한다. 아들의 란도셀 가방을 사기 위해 오늘은 꼭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집을 나선 나는 결국 원고료가 미루어져 빈 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된다. 란도셀 가방은 ‘살아간다는 의욕, 어린 생명을 키운다는 기쁨’처럼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 제재로 사용된다.

었지요.”(89면) 협잡과 사기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의 현실성 있는 묘사와 대비하여 아내를 되찾기 위해 삼팔선을 넘었다는 것,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다는 것, 북에 남기고 온 가족을 모셔다 서울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겠다는 남편의 편지는 뻔뻔함과 염치없음의 극치를 보여준다.

『봄밤에 비는 내리고』의 시점과 달리 서간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사실감과 인물의 심중을 들여다보는 듯한 친밀감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연희의 절망과 거부가 훨씬 더 생생히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에 “간곡히 부탁하오니 두 번 다시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는 불러주지 마시고 또 두 번 다시 감히 나의 앞에 나타나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91면)라는 연희의 절규는 당위성을 얻게 된다.

『결혼도박』에 실린 14편의 소설 중 원치 않은 결혼, 사기 결혼으로 얻어진 결혼의 부정성과 열정도 없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도박하듯 선택한 결혼, 거기에서 얻어지는 책임감과 의무를 거부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듯 이어지는 삶을 그린 소설이 10여 편에 이른다.

이처럼 해방 이후 김광주 소설에서 결혼과 도박이라는 단어가 자주 출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의미망을 갖는가. 이는 작가의 신변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가가 해방 후 『민족문화』 창간호에 발표한 수필 『종교·결혼·아내·나』<sup>22)</sup>를 보면 자신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결혼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첫 단편집의 핵심적 제재인 ‘결혼’이라는 주제어, 작품의 주제의식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신의 결혼은 자포자기의 소위였으며 ‘일종의 사기결혼’이었다

22) 김광주, 『종교·결혼·아내·나』, 『민족문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9, 90-94면.

는 사실은 작가의 날선 감정이 민낯을 드러내는 워딩이다. 사기결혼인 첫 번째 이유는 결혼에 대한 자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울며 거 자먹기’로 신랑이라는 감투를 쓰게 된 이유는 친척들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삼십이 넘도록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던 김광주를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 결혼을 시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 정주시키자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사기결혼인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서이다. 신랑의 변심을 우려해 약혼 후 15일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십오일 동안에 가톨릭 교리를 습득하여 가톨릭교도가 되고 결혼 후라도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아내를 성당에 보낸다는 것을 맹세해야 비로소 결혼이 성립된다는 신부측의 조건”이었다. 결국 자신은 결혼식을 위해 원치 않는 가톨릭교도와 사기한 동시에 된 셈이다.

이 글에서 김광주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이는 종교의 교리와 이를 실천하는 인간들의 삶의 괴리에 기인한다. 십계명의 한 가지도 실생활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보통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종교인들, 이러한 종교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김광주로 하여금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일찍이 상해 프랑스 조계 특유의 낭만적 기질(보헤미아니즘)과 아나키즘 조직인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흡수한 아나키즘적 기질은 김광주로 하여금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기체에 반항하는 운동성을 갖게 하였다.<sup>23)</sup> 이러한 아나키즘적 저항성은 김광주가 상해시절에 발표한 초기소설에 문학적으로 변용을 되는데, 이는 인간 김광주식의 ‘항일운동’인 셈이자 작가 김광주식의 ‘비판적 리얼리즘’인 셈이었다.

데카당스한 사상적 방황과 진지함에 대한 회의, 자유로움에 대한

23) 김은하, 앞의 논문, 85-86면.

탐닉으로 불투명한 삶의 절정기를 보낸 김광주에게 다소 자유주의적, 무정부주의적 방랑성은 체질화 된 것이었다. 대륙을 부유하며 자유로운 삶과 연애생활을 즐겼던 김광주는 친척들의 강압과 오랜 방랑에 시달린, ‘될 대로 되라’는 도박 심리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분히 염세적이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선택한 결혼은 김광주에게 약속과 책임, 의무와 성실이라는 굴레를 씌웠고 종교는 또 다른 족쇄가 되어 작가의 생을 억눌렀으리라 추측된다. 즉 상해 시절 김광주를 억압하는 것이 제국과 식민이었다면 해방 후 그 자리에 결혼과 종교가 위치한 셈이며 이에 반항하는 작가의 포즈가 결국 첫 단편집작집 전체를 수놓고 있다.

결국 결혼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며 자신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점, 불행이고 비극이니 내어던지라는 질문에 그럴 용기가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대답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보이지만 이 대답은 당시의 김광주의 심경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대사이며 이는 소설로 그대로 받아 쓰인다.

“무어라구요? 가족이란 게 아내란 게 자식이란 게 그렇게 매력이 있는 존재예요?”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귀치 않고 시끄럽고 성가시어서…… 이것을 집어 동맹이도 칠 수 없고 해서 발목을 잡아매어서 목매어 끌려가는 소처럼 살아 간다는 말이요……”

“그래서야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싫은 일을 탁탁 잘라 버려야죠.”

“싫은 일을 제 손으로 저질러 놓고 그 속에서 그것을 끊어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관 문에 못이 박히는 날까지 지지하게 끌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일 뿐이요……”<sup>24)</sup>

24) 김광주, 『1952년의 대사』, 『결혼도박』, 금정문화사, 1952, 102면.



작가가 말한 ‘그러려니’의 삶은 비평가 조영암이 『김광주론』에서 “그 후 또 광주의 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애 같지 않은 연애 생활은 더 계속하게 된다.”<sup>25)</sup>이나 아들 김훈이 회고록을 통해 “아버지는 하해와 같은 억겁의 술을 마셨다.” 등의 생활 태도로 나타난다. 김훈의 같은 글을 보면 술에 취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김광주)에게 아들(김훈)이 “아버지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버지 왈(曰)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구간을 돌아 볼 수가 있겠느냐!”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달릴 수 있는 광야란 이미 없으며, 밭 디딜 곳 없는 폐허만이 아버지의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아들의 독백은 좌절한 아나키스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드러낸다.<sup>26)</sup>

1920년대 후반기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마도 상하이’<sup>27)</sup>라는 열정적, 낭만적,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흡수한 아나키즘은 이념적 체계나 사유의 틀이 아니라 그 시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을 통한 개인적 심정적인 것이었기에 김광주만의 자유분방함을 담고 있었으며 이것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낼 때 비판성, 대항성, 대안성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식민도, 국민도, 투사도 될 수 없었던 김광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술과 방랑(연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자조적 글쓰기뿐이었다.

25) 조영암, 『김광주론』, 『한국대표작가전』, 신문관, 1953, 24면.

26) 조성면, 앞의 글, 92-93면.

27) ‘마도(魔都) 상하이’라는 어휘는 모리스 마이스너(Maurice Meisner)의 지적처럼 상해의 이데올로기적, 문명적, 도덕적 이중성을 은유한다. 서양인들이 보기에 상해는 ‘모험가의 낙원’이자 ‘동양의 매춘부’ 사이, 중국인이 보기에 ‘식민성’과 ‘세계성’ 사이, 조선인이 보기에 ‘탈식민의 정치적 모국’과 ‘혁명의 타락자’ 사이에 자리한다. 이처럼 상해가 처한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위치는 어떠한 종족적 정체성을 담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리스 마이스너,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김수영 역, 이산, 2004, 122면.

모든 형태의 폭압, 위선, 가식 등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아나키즘은 궁극적으로 질서에 대한 반역을 통한 파괴 후의 신사회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는다.<sup>28)</sup> 하지만 새로운 신사회로 기대됐던 해방공간에 상해파 아나키스트가 설 자리는 없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국가, 종교, 가족이 김광주를 찍어 누르고 있었으며, 목적의식이 파괴되었을 때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에 대해 희망 없음의 비관성을 드러내는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적 성향으로 타협해간 것이다.

### 3. 공교로운 상황과 자기 폐쇄적 모놀로그(monologue)

앞서 결혼과 도박의 어휘 사용을 통해 김광주의 변모한 세계의식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 하나 더 주의를 요하는 단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다’라는 어휘이다. 이 단어는 『결혼도박』에서 14번이 반복되었는데 김광주가 해방 이후 발표한 소설들에서 주체의 상황(조건)을 압축하는 단어로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sup>29)</sup>

‘공교롭다’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이다. 공교로운 상황은 주체의 환경적 조건이나 공간적 배치를 뜻하는데 그 조건이 예측불가능하거나 부정적, 우연적이어서 기묘한 지경인 것이다. 또한 공교로운 상황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중첩되어 운명적으로 느껴지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

28) 오장환 엮음, 『일제하 한국 아나키즘 소사전』, 소명출판, 65면.

29) ‘공교롭다’는 어휘는 1953년에 발표한 제2단편창작집 『연애제백장』(수문관)에 16번, 1958년에 발표한 제3단편창작집 『혼혈아』(청구서립)에 13번 등장한다. 이를 통해 볼 때에도 ‘공교롭다’는 어휘는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기도 한다.

공교로운 사건은 전차가 오 분만 빨리 왔어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길을 걸어가지만 않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는 확실히 공교로운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남궁여사를 만나 바람난 남편 찾기에 동행해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상해에서 알던 밀정 루바라는 여성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유부지부(有夫之婦)』) 학생들을 데리고 원족을 간 날 ‘공교롭게도’ 전남편이 학교를 찾아와 다시 함께 살기를 강요한다거나(『춘몽』) 피난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간 병원에서 중학교 동기동창을 만나고 또 ‘공교롭게도’ 먼저 온 여성손님과 같은 수면제를 처방받거나(『수면제』), 피난지 도떼기시장에서 반대떡 장사를 하는 아내와 걸작을 쓰기 위해 멋들어진 연애를 하고픈 남편, ‘공교롭게도’ 그 앞에 나타난 남편의 첫사랑 순자의 이야기(『나의 가슴은 항상 푸르다』), 남가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박 동지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 남가의 돈이었다는 사실과 이것이 몇 년간 기다리던 취직이 확정된 아침에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날 아내가 다방의 매니저에게 몸을 더럽히는 사건까지 ‘공교롭게’ 겹쳐진다.(『남편은 무능했다』),

앞서 나열한 상황과 같이 공교롭다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설명한다. 공교로운 상황이 환경적 조건이라면 그러한 사건에 처한 인간의 대처 능력이 결국 작가가 그리고자 한 인간 정신이자 소설의 세계관일 것이다. 운명처럼 찾아온 기이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처하는 인물의 적극적 행위는 결국 한 문제적 개인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김광주 소설에서는 공교로운 사건에 마주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강렬한 자기 의지나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항 정신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들은 역시 공교로움을 짓씹어 먹고 사는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못했다.(『유부지부(有夫之婦)』, 17면)

뜻하지 않은 일도 아니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내 눈앞에는 해외에서 돌아오신 노 혁명투사 공 선생에게 독일식 설계로 된 조선 유일의 양관을 제공한 안 가라는 친일파 부호의 모습과 김포 비행장까지 뛰어 와서 우리 아버님을 제 집 뜰아랫방으로 모셨던 남가란 녀석의 유들유들한 얼굴과 요인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란이를 떠맡기다 시피 시집보낸 내 처가의 일가족들의 비틀어진 얼굴들과 영원히 이마빼기에 한줄기 상처를 걸머지고 제 길을 걸어갈 란이의 모습이 차례 없이 왈각왈각 대들어서는 사라질 줄 몰랐다.

내 빼와 살과 피를 나눈 어린 것을 어떻게 해야 좋으리라는 생각도 없었다. 더 기구하고 무서운 운명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며칠 후 박 군의 사기사건 때문에 법정에서야할 운명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남편은 무능했다』, 166면.)

이 ‘별거벗은 사나이’라는 남자의 나체화를 그리기 시작한지 며칠 안 되어서 남연에게 들려오는 향간의 구구한 소문은 대개 이런 종류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남연은 애당초부터 이따위 말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다.(『사십유혹』, 170면.)

공교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인간상을 통해 사건의 기복과 주제의 건축이 조직적으로 입체화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산문정신은 물러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유약한 1인칭 화자의 자기변화가 서사를 압도한다. 공교로운 상황은 평범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당위론적 운명이기에 이에 저항하거나 극복할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어라’식의 자포자기적 수용에 이른다. 그러므로 소설은 자칫 평면적인 서정으로 흘러가거나 허무주의적 인정으로 귀결된다.

소설의 거개가 연극의 형식인 모놀로그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모놀로그는 등장인물이 특정의 상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대사가 아닌 혼자만의 극(劇)의 대사를 칭한다. 연극에서 다이얼로그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독백(獨白) 또는 솔리로퀴(soliloque)라고도 한다. 모놀로그에서 등장인물은 자기 행동의 동기나 결의를 설명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토론하는 등 내부의 심리를 표명한다. 모놀로그는 자기 자신이나 특별히 어떤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관객을 상대로 하는 표현으로서, 일방적 자기진술과 같다.<sup>30)</sup>

형식적인 측면에서 『결혼도박』을 살펴볼 때 김광주의 창작 실험실같이 드라마투르기적 기법이 눈에 띈다. 드라마투르기(dramaturgy)의 어원은 ‘각본의 상연’이란 뜻의 그리스어인 드라마투르기아(dramaturgia)이다. 일반적으로 희곡이론을 추상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희곡 창작의 실제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이론, 특히 희곡의 작법을 뜻할 때가 많다.<sup>31)</sup> 김광주가 사용하는 드라마투르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모놀로그이다.

김광주는 상해 체류 시절 여러 한인청년들과 함께 〈보헤미안 극사〉를 조직하여 직접 무대에 오를 정도로 극에 관심이 많았으며, 상해에 체류하면서 조선문단에 처음으로 실어 보낸 글 또한 소설이 아니라 중국의 프로 문예 운동, 극단의 동향, 극작가와 그의 희곡에 대한 번역문이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조우의 걸작 『너우』를 번역 출판해 해방기 최대 규모의 공연 무대와 흥행 실적을 자랑한 바 있다. 해방기는 정상적인 의미에서 번역극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미진한 수준의 번역극도 서양 고전극이 중심이었는데 『너우』 외에도 『원야』, 『일출』, 『태변』 등을 번역하여 이것이 절찬리에 극화되었다는 사

30) 김광요 외, 『드라마사전』, 문예림, 2010.

31) 김광요 외, 앞의 책.

실<sup>32)</sup>은 김광주의 희곡에 대한 애정을 짐치게 한다. 또한 이러한 희곡 번역 활동이 그의 소설 창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소설 『1952년의 대사』는 ‘그 여자-밤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인’, ‘그 남자-서울 어떤 유명한 대학의 교수’(93면)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소설 전체가 오직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사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다. 피난지의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초라한 선술집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과거의 연인이 지금은 양공주와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수로 만나 지난날을 회상하며 대거리를 하는 이 소설은 마치 연극의 극본처럼 무대 상연이 가능할 것 같다.

다시 모놀로그로 돌아가 보자. ‘정치, 종교, 문학, 예술, 예의, 염치, 체면, 연애, 출세, 명예, 지위, 도덕, 양심, 지조, 이런 모든 것들을 개에게라도 물려가거라’로 시작되는 『심장에 화살을 쏜다』에서 주인공 그는 해방 전까지 신문기자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다. 하지만 조국의 운명과 더불어 신문사도 쇠락의 길을 걸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는 월급 투쟁을 벌이다 선동분자라는 명목으로 내동댕이쳐진다. 어리석은 패배자가 되어 매일 아내에게 일말의 용돈을 빼앗던 그는 인생의 새로운 화살을 들고 ‘담배치기 말판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업 초일 공교롭게도 심심풀이로 화살을 던지려 온 옛 신문사 사장과 마주치게 된다. 이런 실없는 장사를 하려고 신문사를 그만두었느냐고 비웃는 사장은 담배를 집어 던지고 돈만 원을 말판 위에 놓아두고 군중 속으로 사라진다. 사장의 동정이 모욕처럼 느껴져서 사장을 뒤쫓아 갔다가 공교롭게도 담배마저 줌 도둑에게 모두 도둑맞게 되는 이야기이다.

소설의 결말은 이 모든 공교로운 상황은 “뜻하지 않은 일도”, “놀

32) 『김광주가 번역한 중국 명극이 절찬리에 극화』, 『경향신문』, 1950.6.2.

랄 일도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닥쳐올 자기의 운명을 짐쳐보며 아무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적 언술로 마무리된다. 소설 속 인물은 모놀로그의 형식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발화할 수 있는 단독자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유발되지 않고 외부 상황을 건조하게 묘사하거나 폐쇄적 자기 독백만이 전체를 지배한다. 이러한 공교로운 상황에 대한 인물의 모놀로그는 김광주 소설에서 인물의 심경과 주관의 독백이 압도하는 허무주의적 세계를 구현한다.

공교롭다의 수사학은 외부의 현상만을 설명적으로 묘사하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심상 풍경처럼 가식하기 위한 한 수단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교롭다는 작가 사고의 내부에서 얻은 소산이라기보다 인간의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현상 자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33)</sup>

낭만적이며 자유로운, 비판적 대안성이 사라진 아나키즘이 손쉽게 선천적인 니힐리즘의 생리를 선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학으로 반영될 때 모놀로그 형태의 자기 독백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이러한 인간상이 구체적이거나 개성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러한 니힐리즘은 현실 앞에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며 현실의 벽에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 4. 나오며

인간은 영원한 도박꾼이다.

늘 따는 도박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

33) 이봉래, 『무력한 니힐리즘, 문예시평(3)』, 『경향신문』, 1952.11.5.

늘 잃는 도박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편이 행복한지는 알 수 없지만  
늘 잃기만 하는 도박꾼의 얼굴에서  
우리는 거짓 없는 인간의 표정을 본다.<sup>34)</sup>

해방 이후 출간한 첫 단편창작집 『결혼도박』은 ‘인간은 영원한 도박꾼이다’라는 명제가 서문처럼 달려 있다. 자유분방하고 데카당스한 작가에게 해방 후 새로운 억압의 기제로 출몰한 일상(결혼)에 작가는 도박이라는 승부수를 떠운 셈이다. 결혼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노력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따거나 잃는 우연의 문제이며 이 반어의 조합은 불행과 비극을 전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결혼과 도박, 공교롭다의 어휘가 모노그램처럼 결합하고 그것이 모놀로그의 자기 독백으로 발화되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김광주 초기소설과 변화된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바 1920년대 후반기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마도 상하이’라는 열정적, 낭만적,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흡수한 아나키즘은 이념적 체계나 사유의 틀이 아니라 그 시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을 통한 개인적 심정적인 것이었기에 김광주만의 자유분방함을 담고 있었으며 이것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낼 때 비판성, 대항성, 대안성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식민도, 국민도, 투사도 될 수 없었던 김광주에게 남은 것은 술과 방랑(연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자조적 글쓰기뿐이었다.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에 대해 희망 없음의 비관성을 드러내는 염세주의와 신(神)을 상실한 허무주의적 성향으로 타협해 갔다. 그리고 이것이 문학으로 반영될 때 모놀로그 형태의 자기 독백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다.

34) 김광주, 『결혼도박』, 금정문화사, 1952, 3면.



소설의 결말은 이 모든 공교로운 상황은 “뜻하지 않은 일도”, “놀랄 일도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닥쳐올 자기의 운명을 점쳐보며 아무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적 언술로 마무리된다. 소설 속 인물은 모놀로그의 형식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발화할 수 있는 단 독자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유발되지 않고 외부 상황을 건조하게 묘사하거나 폐쇄적 자기 독백만이 전체를 지배한다. 이러한 특징은 김광주 소설에서 인물의 심경과 주관의 독백이 압도하는 허무주의적 세계를 구현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중국 프로 문예 운동의 과거와 현재』, 『조선일보』, 1931.8.4-8.  
 『상해를 떠나며-파랑의 항구에서』, 『동아일보』, 1938.2.18.-23.  
 『종교·결혼·아내·나』, 『민족문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9.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경향신문』, 1951.12.1.-1952.4.2.  
 『결혼도박』, 금정문화사, 1952.  
 『석방인』, 『경향신문』, 1953.7.10.-12.31.  
 『연애제백장』, 수문관, 1953.  
 『혼혈아』, 청구서림, 1958.

2. 논문

- 김명섭, 「1930년대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아나키즘 인식」, 『사학지』 52, 단국사학회, 2016, 33-59면.  
 김은하, 「김광주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6.  
 김철, 「김광주의 서양문학 인식과 그 전파에 대한 소고」, 『한중인문학연구』 54, 한중인문학회, 2017, 77-100면.  
 —, 「김광주의 초기 소설 연구-1950년대 전 중국 배경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13』, 보고서, 2007, 229-241면.  
 김호웅, 「1920-1930년대 조선문학과 상해-조선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259-288면.  
 박남용, 박은혜, 「김광주의 중국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중국연구』 4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135-153면.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제55호, 민족문학사학회, 2014, 121-152면.  
 서은주,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모던 상하이’의 표상-김광주의 문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 학회, 2008, 433-458면.
- 손과지, 『일제시대 상해 한인사회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8.
- 이영미, 「중국 상해의 항일운동과 한국의 문학지식인」, 『평화학연구』 13, 한국 평화통일학회, 2012, 217-238면.
- 장은석, 김영배, 「모노그램 심볼디자인의 바리에이션에 관한 고찰」, 『조형미디어학』,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05, 191-200면.
- 전지니, 「김광주의 「석방인」을 통해 본 전후 복구의 문제」, 『한국문예창작』 16,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69-99면.
- 정은경, 「상하이의 기억 : 식민지 조선인과 제국 일본인의 감각-김광주와 요코 미쓰 리이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77-110면.
-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2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203-229면.
- 조영암, 「김광주론」, 『한국대표작가전』, 신문관, 1953, 24면.
- 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03-322면.
- \_\_\_\_\_,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5, 한중인문학회, 2018, 45-67면.
- 최미진, 「반공포로 석방과 국민형성의 딜레마」, 『한국민족문화』 41, 분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3-65면.
-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5, 한중인문학회, 2008, 95-125면.
-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 김광주의 <정협지> 화소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65-87면.
- 홍석표,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투선 소설의 번역」, 『중국문학』 8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75-116면.

### 3. 단행본

- 김광요 외, 『드라마사전』, 문예리프, 2010.
- 모리스 마이스너,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김수영 역, 이산, 2004, 122면.
- 오장환 엮음, 『일제하 한국 아나키즘 소사전』, 소명출판, 65면.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2, 188면.

『수원 출신의 소설가 김광주의 삶과 문학』, 경기르네상스포럼 수원박물관  
2016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

<Abstract>

Rhetoric of coincidental, physiology of nihilism  
—Based on Kim Gwang-ju's first short stories,  
『Marriage gambling』—

Jin, Sun-Young

This study analyzed Kim Gwang-ju's first short story collection 『Marriage gambling』 which was used in liberation space and published in the postwar period. Through this, we tried to interpret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Kim Gwang-ju litera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ovel, I saw that the vocabulary of marriage, gambling, and coincidental was combined like a monogram and spoken as a monologue.

This shows Kim Gwang-ju's early novels and changed perceptions of the world. Anarchism, naturally absorbed in a passionate, romantic and liberal atmosphere during the Shanghai era, contained Kim Gwang-ju's free-spiritedness, which had criticism and opposition when it revealed its nationalistic tendencies. After liberation, however, Kim Gwang-ju chose marriage because of desperation. The only thing left to him was alcohol, wandering and self-helping writing for survival.

There was no room for the Shanghai Anarchists in the liberation space, which was expected to be a new pavilion. Rather, a stronger state, religion, and family were holding Kim Gwang-ju. When



objective consciousness was destroyed, resistive anarchism was compromised by the nihilistic tendency to reveal nonconformity.

The ending of the novel ends with a desperate monologue that there is nothing to fear for the coincidental situation. The monologue of the characters about the coincidental situation implements the nihilistic world overwhelmed by the monologue of the character and the monologue of the subject in Kim Gwang-Ju novel. Anarchism, which has lost romantic, free, and critical alternative, is easily preoccupied with the physiology of innate nihilism. And when this is reflected in literature, it is realized through a unique form of monologue-type self-monologue.

Key words: Kim Gwang-ju, Anarchism, Nihilism, Marriage, Gambling, Coincidental, Monogram, Monologue

투 고 일 : 2019년 2월 8일    심 사 일 : 2019년 2월 25일-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7일